S-Oil, 태화루 복원비 100억원 기부

S-Oil이 울산 태화루(太和樓) 복원비용 100억원을 기부한다.

울산시는 태화루 복원비용 총 500억원 가운데 중심포(柱心包) 양식(정면 7칸에 측면 4칸)의 누각 건립에 필요한 100억원을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소재 S-Oil이 기부하기로 했다고 3월7일 발표했다.

울산시와 S-Oil은 3월8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.

울산시는 중구 태화동 옛 로얄예식장 일대 1만403㎡에 조선시대 영남루, 축석루와 함께 <영남 3루>로 꼽히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태화루의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각을 복원해 기증할 곳을 물색해왔다.

S-Oil 관계자는 “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최고경영자(CEO)가 3월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공장이 있는 울산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공헌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”고 밝혔다.

수베이 CEO는 평소 울산공장을 수시로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자신의 한국이름은 이수배(李秀培), 본관은 <울산이씨>라고 소개할 정도로 울산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07>